

李 대통령, 청와대 출근... 첫 일정 국가위기관리센터 점검

대통령실 명칭 ‘청와대’ 변경

아침 차담회에서 주요현안 보고받고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아그레망 재가
李, 본관 집무실 아닌 여민관 업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인 2022년 5월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변경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첫 청와대 출근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한다”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출근 후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에게 주요 현안과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경제성장수석실은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

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민정수석실은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국가범죄태스크포스(TF)’ 출범 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보이스피싱 감소 현황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 병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 및 재난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곳은 윤석열 정부 당시, 집무실이 전으로 많이 훼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복귀를 통해 새롭게 정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시설 개선 공사 기간에도 시스템을 중단 없이 가동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여러분의 손에 국민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집무실을 둘러보며 경호처장과 유사시 이동 동선을 확인하기도 했다.

시찰 후 이 대통령은 여민1관 집무실로 이동해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첫 안건으로 재

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아닌, 여민관에서 업무를 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백성과 함께 한다는 뜻”의 여민관(與民館)에서 국민과 국정 운영 과정을 함께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는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3실장(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이 같은 건물에서, 참모진들과 소통을 하며 조금 더 속도감 있는 결

정과 토론 체계를 만든 것”이라며 “아침마다 하는 일일상황점검회의 같은 경우도 이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에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인 회의 체계부터 3실장 중심의 그런 회의 체계까지 주로 회의로 이루어지는 의견 소통 과정을 통해 참모와 소통하고 좀 더 격렬한 토론과 원활한 의사결정 구조를 여민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의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검은색 코트에 파란색과 빨간색, 흰색이 교차한 넥타이를 매고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붉은 색은 보수진영, 푸른 색은 민주진영, 흰색은 중도를 각각 상징한다. 강 대변인은 “흰색이 새로운 시작이라면, 새로운 출발 이상의 통합이 주요한 뜻이라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에 청와대에는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됐다.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있던 봉황기는 내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10일 취임 첫날 용산 청사로 출근한 지 1329일 만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혁신기업 성장 친화적 제도·환경 만들어야” “변화 지켜보지 말고 한발앞서 실행하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신년사 “AI·디지털 전환·GX, 韓의 핵심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 중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규제와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혁신하는 기업이 규모를 키우고 그 성과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친화적인 제도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29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과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기술 패러다임의 급격한 전환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왔다”면서도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 경제 전반에 점진적인 회복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과제는 이 회복의 흐름을 단기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성장의 속도와 높이를 한 단계 끝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SK

어울릴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을 한국 경제의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꼽았다.

그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대규모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실행력과 속도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제는 지역을 제도 혁신의 실험장으로 삼아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그동안 복합적으로 얽혀 있던 구조적 난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새로운 기업가정신”이라며 “오늘의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위협을 감수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도전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업가정신이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사회적 공감 속에서 다시 한 번 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대한상의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균형 잡힌 정책 논의가 이뤄지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허태수 GS그룹 회장, 경영계획 “주도적으로 변화에 대응해 수익성 유지·리스크 대비해야”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2026년을 변화 대응을 넘어 실행과 성과로 완성하는 해로 규정하며 본업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사업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GS그룹에 따르면 허 회장은 이날 2026년 새해 경영계획을 밝히고 “변화를 지켜만 보지 말고 한발 앞서 실행해 성과로 완성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지난해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가속화되고 AI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영 환경 전반이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았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26년 역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위기 돌파의 출발점으로 본업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



다. 그는 “자유가 기초와 수요 둔화 가능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화학 산업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 역시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떤 미래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주도적으로 변화에 대응해 수익성을 유지하고 리스크에 대비한 치밀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기회요인은 분명하다고 짚었다. 허 회장은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의 구조적 증가와 에너지 전환, AI·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구 구조 변화는 새로운 사업 지형도를 형성하고 있다”며 “에너지와 인프라, 운영 역량을 두루 갖춘 GS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양한 연관 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65세 이상 고령층 40% ‘경제활동’ 한다

데이터처, 상시근로 43% 일용직 30%
월 평균 카드 사용금액 85만2000원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의 40% 이상이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층의 월평균 카드사용액은 85만 원 수준으로 소매업(42.1%)과 보건·의료(10.6%) 등에서 사용 비중이 컸다. 또 총인구 중 사회적

외톨이로 분류되는 이른바 ‘교류저조층’은 약 5%를 차지했다.

국가데이터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관심계층 생활특성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근로자 비중은 43.2%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65~69세의 근로자 비중은 59.3%를 기록했다. 80세 이상도 20.7%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고령층 근로는 상시근로자 42.8%, 일용근로자 29.5%, 자영업자 27.8%로 구성돼 있었다.

이들의 월평균 카드사용 금액은 올해 1분기 기준 85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업종은 소매업이 42.1%로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10.6%), 운송(10.0%), 음식점(9.2%) 순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카드 사용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32만 8000원에 그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대량공급 능력 갖춘 SK하이닉스가 유리”

>> 1면 ‘HBM3E 대세 지속...’서 계속

엔비디아에 제공한 HBM4 유사 샘플이 최종 품질 테스트를 사실상 통과하며 양산 체제로 전환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15X는 총 2개의 클린룸으로 운영된다. 내년 2월 첫 번째 클린룸 가동을 시작으로 연말에는 두 번째 클린룸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또한 평택 캠퍼스에서 HBM4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수행하는 토텐 솔루션과 앞선 미세 공정 기술을 앞세워 경쟁력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HBM3E는 내년에도 시장 수요의 주류로 남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가격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차기 격전지로 꼽히는 HBM4의 경우 공급업체 수와 주요 고객사 인증 마무리 시점에 따라 향후 공급 여건과 가격 변동이 좌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